

## 요란한 봄비 ... '벚꽃 엔딩'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7일, 쏟아지는 비에도 미세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듯 광주 동구 서석동의 한 건널목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연게 흐려보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역대급 이상저온... 농작물 '냉해 대란' 오나

광주·전남 봄 날씨 최저·최고기온 25도 이상 차이 '변덕' 피해 컸던 2014년과 비슷... 농진청 "과수농가 철저 대비"

올 봄 들쭉날쭉한 기온이 심상치 않다. 이달 들어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 역대급 이상저온으로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극과 극을 오가는' 기상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최근 10년 사이 두 차례나 봄철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큰 농작물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지역에선 올 봄에도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기상패턴이 이상저온 피해가 심했던 2013년 겨울부터 2014년 봄까

지의 기온과 강수량 등에서 '판박이'처럼 유사하다 점에서, 개화기 과수농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7일 농업진흥청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기상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겨울(2018년 12월~2019년 2월) 기온은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컸던 2013~2014년 겨울·봄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겨울 평균기온은 1.6도로, 2013년 겨울(2013년 12~2014년 2월) 평균기온(1.7도)과 비슷했다. 같은 기간 강수량도 78.5mm를 기록하는 등 73.5mm의 비가 내린 2013년 겨울시즌과 흡사했다. 2014년 봄 시즌 이상저온 현상은 4월 5~6일 이틀간 발생했고, 5월 6~7일에는 서리가 내리면서 배와 사과 등 과수는 물론 녹차 등도 잎이 탈색하는 등 막대한 저온 피

해를 입었다.

올해도 벌써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영암지역의 경우 지난 1일 기온이 영하 3.8도를 기록하면서 일부 배 농가에서 꽃잎이 말랐다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영암은 지난 6일에는 22.6도를 기록하는 등 4월 최저·최고기온이 25도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극심한 기온변화가 개화기 전후(4~5월)에 발생할 경우엔 씨방이 검게 변하고, 심한 경우 개화하지 못하고 고사하거나 개화하더라도 결실이 되지 않으며, 수정시에도 기형과가 돼 조기 낙과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농업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올 봄 이상저온 현상이 앞으로 수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다는 점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최근 광주·전남 3개월 전망(2019년 4월~6월)을 통해 4월은 평년(12.2~13도)기온 보다 다소 높지만, 일시적인 상층부 한기의 영향으로 몇 차례(이상저온 현상으로)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10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도 이상저온 현상이 주로 발생한 시기는 3월 26~27일, 4월 7~8일, 4월 29~30일 등이었다.

농업진흥청 등은 올해 이상저온 현상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농가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알리는 등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이상저온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과수원 온도가 1~2도로 낮게 예상될 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미세살수로 물이 얼음으로 될 때 방출되는 열을 이용하는 살수법 ▲송풍기를 이용해 과수원내 정체된 찬공기를 순환하는 송풍법 ▲새벽시간(새벽 2~5시) 볏짚, 톱밥 등을 태워 과수원 기온을 높여주는 연무법 등이 있다.

농업진흥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상저온 현상은 물론 황사와 고온현상, 잦은 강우 등 꽃 개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자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수농가에서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저온, 서리 등 이상기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한전 배구단, 수원과 기습 재계약 광주시·체육계 "시민 우롱" 반발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전력의 배구단이 기습적으로 수원시와 연고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광주시와 광주시 배구협회 등 체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이 지역 상생발전을 외면한 점도 있지만, 특히 지난 3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한전 배구단을 방문해 연고지 이전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뒤 전격적으로 수원시와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광주 시민을 우롱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7일 김옥조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한국전력의 지역상생 발전 외면과 지역민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전은 수원과의 연고지 협약이 이달 말에 끝남에도 광주시와 정상적인 협의의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5일 짜여진 각본처럼 기습적으로 수원시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경기도 의왕까지 가서 선수들에게 연고지 이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설명하고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철저한 보안 속에 전격

적으로 재계약을 단행했다"면서 "특히 한전 사장은 이 시장의 면담 요청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광주시와 의회, 체육계, 시민 등 지역사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전 배구단 연고지 광주 이전을 한전 측에 간절히 요청하고, 유치의향서 제출과 시민 서명운동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수원시와 재계약은) 150만 광주 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전 배구단 연고지 유치를 추진해 왔던 광주시배구협회도 허탈함과 서운함을 나타냈다.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은 "한국 배구 101년 역사상 광주는 서울, 부산과 함께 배구 인프라 3대 축을 형성해 왔다"며 "한전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본사와 배구단이 동일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순리다"며 "생활배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광주로 연고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노동자 지원·일자리 창출 등 내년까지 정부서 재정 지원

목포·영암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연장돼 오는 2020년 5월 3일까지 지속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고용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영암 지역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중앙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2020년 5월 3일까지 이어진다.

그동안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규모는 67개 사업, 1846억원이었다. 사업별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근로 실직자 지원에 237억원, 조선부품 기업 위기극복 지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에 105억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우대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에 129억원이 투입됐다. 또 남해안 철도건설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524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유동성 지원에 478억원, 중소기업 공공건축조사업 등 기타 목적예비비 사업에 374억원 등이 지원됐다.

전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5월 3일로 다가옴에 따라 목포시, 영암군과 함께 지역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 후 심의를 통해 1년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

목포·영암 지역산업의 근간이 되는 조선산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지정 당시 조선업 관련 종사자가 2015년에 비해 1만2000여 명이 줄어드는 등 고용 지표가 악화됐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수주 현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가 폐업하고,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다. 음식·숙박업 역시 원물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침체기에 머물러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해양도시가스가 4월 4일 부터 해양에너지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 37년 역사를 자랑하는 해양도시가스, "해양에너지"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명인 "해양에너지"는 광주, 전남 지역을 상징하는 "해양"이라는 역사적 지명과 종합에너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로 "에너지"를 결합하여 사용하게 됐다.

새로운 사명인 "해양에너지"는 친환경시대의 청정에너지로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고 미래의 가치를 높여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 힘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해양에너지의 새로운 CI는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해양에너지"의 슬로건 아래 무한한 가치 실현과 지속성장, 자연과 인류의 긴밀한 공존을 표현하고자 뱀비우스 띠를 CI로 형상화했다.

### 해양(海陽)명칭의 역사적 유래

고려 전기인 995(성종14)년 9월에 전국을 10개 도(道)로 편성하면서 지금의 광주 전남 지역을 해양도(海陽道)라 지명하고, 14주 62현을 관할하게 했다. 해양도가 관할하던 주현은 나주, 광주, 정주[현 영광], 남주[현 영암], 패주[현 보성], 승주 등이었다. 1018(현종9)년에 해양도는 강남도[현 전라북도 지역]와 합하여 전라도가 되었다.

